앨러지(allergy)방지 가공

알레르기(독어 : allergie)를 발생시키는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. Ⅰ형 : 즉시형, Ⅱ형 : 세포융해형, Ⅲ형 : 항원항체 결합물형, Ⅳ형 : 지연형이 있다.

Ⅰ형의 알레르기는 즉시형 알레르기(영어 : allergy)로 부르며,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. 이른바 앨러겐(allergen、피부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물질)에 접촉하여 곧 증상이 나타나는 타입이다. 이에 대해 Ⅳ형 알레르기는 지연형 알레르기로 부르고, 앨러겐과 접촉하여 24 48시간 후에 증상이 일어나는 타입이다. 섬유제품의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고 하며, Ⅳ형 알레르기에 속하여 1 2일 후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.

섬유제품의 염료와 가공제는 상품명으로 1,200종류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다. 따라서 피부에 대해 앨러겐이 거의 없는 염료와 가공제만을 사용하여 가공한 면 100%의 소재로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과 유아용의 속옷과 파자마 등이 개발되고 있다.